

# 근대건축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소고

-기능(술)주의, 형식주의, 예술주의와 전망-

이상헌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조교수)

## 1. 서론

근대건축이라는 개념은 현재의 모든 건축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고, 우리는 이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그 지시하는 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공유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근대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 장식이 없는 단순한 기계 미학적 건축양식을 연상하고, 어떤 이는 근대건축을 말하면서 근대사회의 기술적, 사회적 이상주의를 강조하고, 또 어떤 이는 근대적 공간개념이나 모더니즘예술의 추상적 형식 원리를 근대건축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 각각의 개념들은 나름대로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 만큼 근대건축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근대건축을 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이들 각각의 개념들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입장들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조망과 이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대건축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어느 하나의 입장이 그 역사적

맥락과 유리된 채 받아들여져서 절대적 개념으로 주장되면, 그것은 중국적으로 독선과 의사소통의 단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념의 혼돈과 소통의 부재 상황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근대건축이 외부로부터 이식된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건축에 관한 그 많은 논의들이 걸들고 축적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릇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하나의 단어, 혹은 개념은 그 자체의 고유한 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1)</sup> 예를 들어 가난이라는 개념을 보자. 가난이라는 개념이 고대로마시대, 중세사회, 동양유교사회,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함의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근대건축이라는 개념도 예외가 아니다. 근대건축은 보편적이고 불변의 내용을 갖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개념이며,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지역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변해왔다. 다시 말해 근대건축은 하나의 실체적 양식개념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그 개념이 변화되고 조정되어 온 것이다. 근대 건축에 대한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 이러한 생각은 소쉬르에서 출발한 근대 구조주의 언어학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Ferdinand de Saussures,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1959) 참조

이러한 입장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근대건축에 대한 입장을 기능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예술주의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조망과 비평적 분석을 통해서 근대건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또 그럼으로써 한국 현대건축의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근대건축개념의 역사적 변천: 기능(술)주의, 형식주의, 예술주의

우리가 근대건축에 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신화(myth) 가운데 하나는 근대건축이 하나의 실체적 건축양식이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근대건축은 장식이 배제된 백색의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 건축양식으로, 근대기술을 수용하여 19세기의 역사주의와 장식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근대미학을 완성시켰을 뿐 아니라, 근대 사회의 이상을 구현한 우리시대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디온(S. Giedion), 페브스너(N. Pevsner), 히치콕(H. R. Hitchcock) 등의 20세기 초 근대건축의 역사가들에 의해 정립되고 전파되었다.<sup>2)</sup> 그러나 근대건축에 관한 이러한 개념은 이들 근대건축의 이데올로그들(Ideologues)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실제의 역사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면 근대의 대표적 건축가중 한 명인 타우트(Bruno Taut)는 근대건축의 기술적 측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미스(Mies)나 멘델존(Erich Mendelsohn) 같은 건축가도 근대건축의 형식미학적 측면에만 관심이 있었지 근대적 사회의 식이나 정치적 급진성과는 무관하였다. 반면 마이(Ernst May)나 하네스 마이어(Hannes Mayer)와 같은 건축가는 소위 근대건축의 미

학적 측면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건축의 이러한 복잡성은 이들 건축사가들에 의해 단순화되고 생략되었던 것이다.<sup>3)</sup>

또 유럽의 근대건축이 미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근대건축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라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양식으로 재 발명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4)</sup> 이 과정에서 유럽의 근대건축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주의적이고, 사회 개혁적인 성격이 거세되고 근대건축은 순수한 미학적 형태양식으로 변질되었음은 물론이다. 2차 세계대전이 후 주로 미국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된 근대건축은 이러한 국제주의 양식으로써, 이것은 이미 초기 근대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근대사회의 이상향을 상실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근대 자본주의적 도시상업건축의 전형으로 변질되었다. 이 국제주의적 근대건축은 특히 제3세계에서 근대화 와 서구화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건설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근대건축은 1960년대부터 비판되기 시작하였다. 전 후(戰後)의 역사가들은 1세대 역사가들의 기능주의적 기계미학에 바탕을 둔 근대건축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2세대의 대표적 역사가인 반함(Reyner Banham)은 1920년대의 근대건축은 그 이데올로그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기술과 예술을 통합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주장한 통합은 단지 미학적, 상징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었음을 밝혀내고, 진정으로 근대기술을 수용한 근대건축의 대안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sup>5)</sup> 이에 대해 조디(William Jordy)는 근대건축을 기

2) 대표적으로는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1941), Nicola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1936), H. R. Hitchcock, Modern Architecture. Romanticism and its Reintegration (1929) 등의 저서를 들 수 있다.

3) 앞서 언급한 근대건축사가들의 근대건축론은 그 자체의 이론적 모순이 있었다. 이들의 근대건축사론의 이론적 모순과 그 이데올로기성에 관해서 필자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 “근대건축사론에서 기술의 문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9년 3월 참조

4) H. R. Hitchcock and P. Johnson, Internationalism (1932)를 보시오

5)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1960)를 보시오

술 결정론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1920년대의 근대건축이 지향했던 것은 기능의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었음을 강조하였다.<sup>6)</sup>

기능주의와 기계미학 그리고 근대적 유토피아의 이상에 바탕을 둔 근대건축의 개념은 이와는 정 반대의 입장에서조차 비판받았다. 근대건축의 본질은 기능이나 기술, 또는 사회적, 도덕적 태도의 반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형식원리에 있으며, 그 형식원리는 근대정신의 심층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형식주의적 해석이 2차 대전 직후부터 대두하였다. 이러한 반(反) 기능주의적 형식주의의 대표적 인물은 콜린 로우(Colin Rowe)였다. 그는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의 형식주의적 모더니즘론에 영향을 받아 꼬르뷰제와 같은 1920년대 근대건축의 거장들의 작품을 순수형식원리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 후 현대건축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sup>7)</sup> 특히 기능주의적 근대건축이론에 의해 형성된 근대도시환경의 궁극적인 실패가 사회 문제화되는 1970년 이후 이러한 반(反) 기능주의 적이고 반(反) 이상주의적인 근대건축의 해석적 입장은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sup>8)</sup>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근대건축의 기능주의적 미니멀

리즘(minimalism)을 비판하고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근대건축의 기능주의적 교의를 엘리트주의로 비판하면서 장식과 고전어휘를 부활하였으며, 19세기 보자르 절충주의 (Beaux-arts eclecticism) 건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근대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sup>9)</sup>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근대건축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즉 장식주의 대 기능주의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로 근대건축을 정의함으로써 근대건축이 가지는 복합성을 무시하는 초기 근대건축의 이론가들이 범한 오류를 반복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근대건축의 마녀사냥식 비판은 한편으로 이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면서, 1920년대 모더니즘 건축을 본격적으로 재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역사가와 이론가들은 모더니스트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정식화된 장식주의 대 기능주의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고 근대건축을 근대성(modernity)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문화적 상황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10)</sup> 이들은 초기의 근대건축의 역사가들에 의해 배제되었던 1920-30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적 경향들을 연구하여 역사의 표면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통주의, 표현주의, 구성주의 등 근대건축의 여러 경향들이 하나의 “근대양식”으로 묶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이었음을 밝혀 주었다.<sup>11)</sup>

6) William H. Jordy, "The Symbolic Essence of Modern European Architecture of Twenties and its Continuing Influence" in *JSAH*, vol. X. no.3 1963. pp. 169-181. 그러나 이들 반 기능주의적 근대건축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근대사회의 양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역사주의적 입장은 보존하였다. 이점에서 이들은 초기 근대건축의 역사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7) 그린버그의 모더니즘론은 Celement Greenberg, "Avant-Garde and Kitch,"(1939) in *Pollock and After: The Critical Debate*, New York, 1985, 5-22참조. Colin Rowe, "Trasparancy: Literal and Phenomenal" in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1976) 이 논문은 1956년 쓰였고 처음 출판된 것은 1963년이다.

8) 1972년 프루이트 이고(Pruit Igoe)의 예는 기능주의적 근대건축의 실패를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9) 대표적으로 1978년 MOMA에서 있었던 Beaux-Arts전을 들 수 있다. Arthur Drexler, *Architecture of the Ecole des Beaux-Art* Cambridge, MIT press(1978) 참조

10) 대표적으로, A. Vidler, "Academism vs. Modernism" in *Oppositions* 8 (1977)을 보시오.

11) 예를 들면 Christian Otto의 Heimatschutz운동에 관한 연구("Modern Environment and Historical Continuity: The Heimatschutz Discourse in Germany" in *Art Journal*(1983), Rosemarie H Bletter의 표현주의에 관한 연구 ("The Interpretation of the Glass Dream-Expressionist Architecture and the History of the Crystal Metaphor," in *ISAH*. March (1981), Dennis Doordan의 이태리 합리주의에 관한 연

한편 콜린 로우에 의해 시작된 근대건축의 순수한 형식주의적 해석도 그간 축적된 모더니즘 예술론의 연구성과와 구조주의(Structuralism)와 같은 현대철학의 영향아래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 졌다. 구조주의는 기능 또는 기술과 건축형태사이의 관계를 임의적(arbitrary)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능주의적 건축론을 비판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서양건축에서 뿌리깊은 인간주의적(humanist)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었다.<sup>12)</sup> 이제 건축의 형식원리가 다른 어떤 외부의 참조로부터 벗어나 건축자체의 고유한 탐구대상이 됨으로서, 근대건축을 모더니즘예술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예를 들면, 에이젠만(Peter Eisenmann)은 모더니즘예술의 특징인 자기 참조성(self referentiality)과 추상화(abstraction)를 기준으로 삼아, 1920년대의 건축은 기술과 기능에 지나치게 얽매임으로 해서 충분히 추상화되지 못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건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모더니즘을 건축에서 실현하고자 탈 기능주의(Post-Functionalism)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예술주의적 근대건축의 입장은 나아가 1920년대의 건축을 피터 버거(Peter Burger)가 제안한 (모더니즘과 구별되는)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sup>14)</sup> 즉, 예술적 아방가르드

의 핵심주제인 체제부정적 성격(Negation), 대중문화(Mass culture)와의 관계, 또는 주체(subjectivity)의 문제 등이 근대건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밝혀 내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콜로미나(B. Colomina)는 꼬르뷰제의 건축을 대중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고,<sup>15)</sup> 헤이즈(M. Hays)는 하네스 마이어(Hannes Meyer)와 히르벨자이머(Hibelseimer)의 건축을 아방가르드의 부정의 실천(Negation)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sup>16)</sup> 추미와 쿨하스와 같은 현대 건축가들도 이러한 예술주의적 근대건축의 입장에서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방가르드로써 건축의 비판적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反)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건축형식 내부의 문제를 건축의 주요 탐구 주제로 삼는 최근의 모든 건축 경향은 이와 같이 근대건축을 모더니스트 아방가르드 예술론과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반(反) 기능주의적, 형식주의적, 예술주의적 입장에서 근대건축을 모더니즘 예술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sup>17)</sup>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입장은 우선 이전의 기능주의적, 유포피아적, 결정론적 해석이 근대건축운동의 역사적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하였음에 비하여, 근대건축의 형식내부에 존재하는 심층적 의미를 밝혀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건축과 순수 예술사이에 있는 근본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역시 근대건축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건축이 갖는 목적

구("The Political Content in Italian Architecture During the Fascist Era" in *Art Journal*, (1983)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구성주의를 비롯한 근대건축의 다양한 경향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 12) 구조주의와 현대건축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Alan Colquhoun, "Postmodernism and Structuralism: A Retrospective Glance." in *Modernity and the Classical Tradition*, MIT Press, 1991, pp.243-255 참조
- 13) Peter Eisenmann, "Post Functionalism," in *Oppositions* 6 (1976)
- 14) 피터 버거의 *Theory of the Avant Garde*, translated by Michael Shaw,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4) 참조

15) B. Colomina, "L'esprit Nouveau: Architecture and Publicite" in *ArchitectureReproduction* i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8)

16) M. Hays, "Reproduction and Negation: The Cognitive Project of the Avant-Garde" in *ArchitectureReproduction* (1988)

17) 필자가 아는 한 형식주의자와 예술주의자들은 왜 건축이 순수 예술적 실천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성과 물질의존성 그리고 그 독특한 생산과 수용의 방식은 건축을 다른 예술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이다.<sup>18)</sup> 따라서 건축은 순수예술과 달리 정신적 개혁뿐 아니라 물질적 개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근대건축운동이 다른 예술운동과 달리 근대사회의 통합된 양식을 추구함으로써 정신과 물질, 예술과 기술의 재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근대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술주의, 기능주의와 형식주의, 예술주의의 사이에서 근대건축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불변의 개념으로서 근대건축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러저러한 근대건축의 개념이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 문화, 경제적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필요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고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조망을 갖는 것이다. 근대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 근대건축의 정의

근대건축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기능)주의나 그것의 안티테제(anti-thesis)로서의 형식주의의 구도를 벗어나, 서구사회의 근대화 과정속에서의 문화적 근대성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성(Modernity)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고 또 각각의 예술양식 마다 반영되는 특수성이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근대성은 근대과학 기술의 발전과 계몽주의적인 비판적 이성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18세기말 이후의 서구사회의 급격한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철학에서부터 과학 기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근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며, 대도시가 출현하고, 전통적인 정치적, 종교적 권위가 무너지고, 예술과 기술의 분리 등 지식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며, 하나의 통합된 가치체계로써의 규범의 붕괴가 나타난다.<sup>19)</sup>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말하듯이, 서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는 과학, 정치(도덕), 미학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고 각각의 전문적 원리의 창출에 의해 지배된다.<sup>20)</sup> 또한 전통사회를 묶어놓고 있던 절대적 권위로부터 해방됨으로서, 사회의 진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시간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새것과 일시성, 순간성의 숭배와 같은 근대사회의 새로운 경험과 인식은 예술의 형식과 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각 예술장에서 새로운 모더니즘 예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사회로의 변화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권위체계가 무너짐으로서 생기는 사회적 통합의 문제이다. 계몽주의는 칸트가 주장했듯이 이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출발하였다.<sup>21)</sup> 이러한 권위의 파괴와 전통적 체계의 붕괴는 비판적 이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재구성됨으로, 모든 비이성적, 비합리적 속박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한 차원 높은 안정된 질서로의 도약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근대사회의 문화적 파편화와 분열양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성과 합리적 주체성에 기초한 근대문명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반대급부라고 믿고 있다.<sup>22)</sup>

18)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기능을 충족시켜야 하며, 벤야민이 지적했듯이 건축물의 감상은 관조적이라기 보다는 관습적으로 이루어진다. 건축의 수용방식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 W. Benjamin,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1936) 참조

19) 이것이 건축에서는 18세기말, 19세기의 양식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20) J. Habermas, "Modernity: An Incomplete Project" in *Anti-Aesthetics*, p. 3-15

21) E. Kant, "What is Enlightenment?"(1788) 참조

22) 대표적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비평가들은 이것을 계몽주의의 변증법, 혹은 도구적 이성이라는 개념

건축은 이러한 근대문화의 양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18세기 말 신고전주의의 붕괴 이후 건축은 절대적 양식규범을 상실하고, 전통적으로 건축 안에서 통합되어 있던 예술과 기술이 분리되는 징후를 보인다.<sup>23)</sup> 이 후 서양의 근대건축은 끊임없이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근대양식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19세기를 통해 이러한 믿음은 낭만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예술과 기술의 제도적 분리는 더욱 공고해졌고 이성적 노력에 의해 기술과 예술의 재결합을 이름으로써 새로운 근대 양식을 창출하고자 했던 구조합리주의자들의 노력은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었으며, 과거양식의 창조적 모방에 의해 근대양식을 만들고자 했던 절충주의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과거의 역사양식을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sup>24)</sup> 공유된 언어의 상실과 새로운 양식창조의 불가능성은 근대문화의 분열을 상징하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어도 근대사회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근대양식의 모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20세기초 표현주의, 독일공작연맹, 바우하우스, 전통주의, 기능주의, 미래파, 러시아 구성주의 등의 다양한 건축운동도 한마디로 근대사회를 대변할 새로운 건축언어의 탐구를

으로 설명하고 있다. Th. Adorno, "The Concept of Enlightenment" in *Dialectic of Enlightenment*. pp. 3-42 참조. 또, 푸코와 들레즈와 같은 후기구조주의자들도 *Discipline and punishment*와 *Anti-Oedipus* 같은 저서에서 이성과 합리성의 이면에 있는 억압적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물론 하버마스는 모더니티의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중이라는 보다 낙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23) 신고전주의의 붕괴 이전에는 근대과학기술의 발전과 계몽주의의 모순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 필자의 MIT 박사논문, *Technology and Form: Iron 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Architectural ideals in nineteenth Century France, 1830-1889*(1996)에서 다룬 바 있다.
- 24) 이에 관하여 필자의 MIT 박사논문, *Technology and Form: Iron 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Architectural ideals in nineteenth Century France, 1830-1889*(1996) Part III, Iron Construction and the Dilemma of Bourgeois Rationalism, 1852-89 참조

위한 노력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콘크리트와 건설기술의 발전,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하에서 서민주택을 대량 건설하면서,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장식이 배제된 새로운 건축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근대기술사회의 이상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부 근대건축가들은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통한 기능적 건축과 당시의 산업용 건물에서 새로운 미학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당시 등장한 데 슈틸(De Stijl)과 같은 모더니스트 아방가르드 미학의 원리를 접합시켜 면과 선의 구성을 이용한 박스 형태의 새로운 건축양식을 발전시킨다. 근대건축의 이데올로그(Ideologues)들은 주로 콘크리트와 철, 유리를 사용하는 이 새로운 건축형식이 근대사회의 통합양식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그들은 이 새로운 건축이 근대기술과 근대미학의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 냈을 뿐 아니라 근대사회의 유토피아적 이상을 실현한 근대의 새로운 양식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후 비평가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사실이기보다는 하나의 선전이였다. 그들은 그들의 이론적 틀에 맞지 않는 당시의 다양한 근대건축운동들을 단순화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 또 반합이 밝혔듯이 그 새로운 건축의 형태는 기술과 재료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왔다고 보다는 근대미학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들이 주장한 예술과 기술의 통합은 진정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상징 또는 의식(Consciousness)의 차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sup>25)</sup> 즉 그들의 주장은 근대사회의 문화적 통합에 대한 열망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후 근대건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형식주의와 예술주의의 입장에서 재해석되면서 점점 추상화되고 관념화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예술과 기술을 재결합하여 20세기의 새로운 통합양식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결국 건축의 예술화, 정신화에 이르며,<sup>26)</sup> 이는 어떤 의

- 25) 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1960) 참조

미에서 각 영역들 사이의 단절을 가져온 문화적 근대화과정의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모더니즘예술도 대상의 재현을 통한 의미의 전달이라는 전통적 예술의 과제로부터 벗어나 점차 예술형식 그 자체를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 추상화(abstraction)와 자기참조화(self-referentiality)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축에서 새로운 양식창조를 위한 참조물이 재료, 기술, 기능 등으로부터 점차 건축 자체의 규범과 형식내부의 문제로 되는 것은 서양문화의 전개에서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과정인 것이다.

#### 4. 근대건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러한 근대건축의 역사적 궤적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들은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근대건축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어떤 학자들은 예술적 아방가르드로서의 근대건축의 비평적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근대자본주의사회의 문화체계와 그 속에서 모더니즘미학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루카치(Georg Lukacs)는 모더니즘의 추상화와 자기참조성을 자본주의사회의 소외와 의식의 과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비판한 바 있다.<sup>26)</sup> 이러한 입장은 타푸리(Manfredo Tafuri)의 근대건축론에서도 잘 나타난다.<sup>28)</sup> 그는 근대건축의 합리주의와 기능주의 그리고 모더니스트 아방가르드 운동은 모두 그 정치적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에 복무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대건축의 아방가르드 적인 어떤 노력도 부정적으로 보았다.<sup>29)</sup> 하버마스도 근대건축의 유토피아적 희망은 달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대건축이 하나의 소통 가능한 통합된 건축양식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건축의 문제이기보다는 그가 주장하는 세 영역간의 단절이라는 문화적 모더니티의 보다 근원적 문제 때문인 것이다.<sup>30)</sup>

이와 반대로 그린버그나 아도르노(Th. Adorno)같은 이론가는 모더니즘 미학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모더니즘은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자체의 대상에 매몰함으로써 현대자본주의사회의 상품화 메커니즘에 저항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sup>31)</sup> 이러한 입장은 모더니즘예술의 저항적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모더니즘,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건축적 실천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자체를 건축적 탐구의 소재로 삼음으로서, 건축의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거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역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어 문화의 비평적, 저항적 기능(Negation)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에 영향하에서 최근 유행하는 해체주의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현대 건축의 지나친 예술주의에로의 경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건축의 지나친 추상화와 예술주의는 건축의 일차적 목적이자 존재근거인 물성과 구축성에 대한 관심을 상실케 해서 건축이 상품화하는데 일조 했다는 것이다. 예

26) 근대건축론의 정신화와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해서는 졸고, "근대건축사론에서 기술의 문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9년 3월 참조.  
 27) G. Lukacs, "The Ideology of Modernism" in Realism in our Time, Literature and the Class Struggle Haper and Row, 1971, pp. 17-46  
 28) M.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 Design and Capitalist development (1978) 참조. 물론 타푸리의 분석은 루카치의 반영론보다 훨씬 역사적이고 변증법적이다.

29) 앞의 책. 특히 Chap 8. "Problems on the Form of a Conclusion" pp. 170-182 참조  
 30) J. Habermas, "Modernity, An Incomplete Project" (1980)  
 31) 아도르노의 대표적 예술론으로는 "On the Fetish Character in Music and the Regression of Listening" (1938) in The Essential Frankfurt School Reader, ed, Arator, New York, 1978, 를 보시오. 특히 아도르노의 예술의 자율성의 개념에 관해서는 "Commitment" in Aesthetics and Politics, London, 1977를 참조.

술주의와 건축의 지나친 추상화에 대한 반발에서 최근 텍토닉의 개념과 같이 건축의 자율성(Autonomy)과 건축의 물성(物性) 그리고 현상학적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중요한 흐름으로 대두하고 있다.<sup>32)</sup>

## 5. 결론: 한국에서의 근대건축의 개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양에 있어서 근대건축은 하나의 단순한 양식이나, 형태 또는 공간구성 원리이기보다는 18세기 말 이후 전개된 근대화라는 서구사회의 총체적 변동과 문화적 근대성의 맥락에서의 건축의 대응양식 또는 존재방식이라는 넓은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건축의 기능주의, 형식주의 예술주의적 제 개념들은 바로 이러한 대응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논리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서구의 근대건축의 개념을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에서의 근대건축에 관한 논의는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문화적 근대성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사회변동의 차원으로부터 다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서구와의 차이점들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같은 근대건축양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식될 때는 서구에서와는 아주 다른 전 근대적(前近代的) 지배 이데올로기를 떨 수 있으며, 역으로 근대와 대비되는 전통의 개념도--포스트모더니즘의 전통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비 서구사회에서는 진보적 의미를 떨 수도 있다. 또 서구의 아방가르드 건축 경향인 형식주의적, 예술주의적 근대건축론의 무비판적 수용도 그것이 서구사회에서 갖는 문화 비평적 실천의 의미를 결여한 피상적 수준의 모방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당연하다.

오히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근대건축의

과정에서 우선 주목하여야 할 것은 예술과 기술의 분리와 함께 건축이 하나의 순수예술로서 제도화되는 근대화의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회과정과 분리된 채로 서구의 근대건축이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서구적 건축의 개념과 여러 가지 서구건축 제도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동양에서 아직도 건축이 기술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종종(예술로서의)건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고, 현대 한국문화와 학문의 파편화--서구문화가 총체적으로 수입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나 마르크스(Karl Marx)가 지적했듯이 변증법적 안목에서 볼 때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모멘트를 포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야말로 지나친 예술주의에 경도 되지 않고 초기 근대건축이 가졌던 건전한 의미의 기술주의의 가능성을 바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보다 치밀한 생각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1. Nicola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1936),
2.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Cambridge, the MIT Press, 1980
3. William Jordy, "The Symbolic Essence of Modern European Architecture of Twenties and its Continuing Influence" in *JSAH*, vol.X. no.3 1963. pp.169-181. 1963
4. Manfredo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Design and Capitalist Development*, Cambridge. MIT Press, 1978

32) 대표적으로는 K. Frampton, "Rappel a l'ordre, Tectonics in architecture," in *AD Profile*, no. 85를 보시오.



5. Jurgen Habermas, "Modernity, An Incomplete Project" in *Anti-Aesthetics* 1980
6. Antony Vidler, "Academism vs Modernism" in *Oppositions* 6, 1977
7. Colin Rowe, "Transparency: Literal and Phenomenal," in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Cambridge, MIT Press, 1976
8. H. R.Hitchcock and P. Johnson, *Internationalism*, 1932
9. Alan Colquhoun, "Postmodernism and Structuralism: A Retrospective Glance." in *Assemblage* 5, 1988
10. Peter Eisenmann, "Post Functionalism," in *Oppositions* 6, 1976
11. Clement Greenberg, "Avant-Garde and Kitch (1939)," in *Pollock and Aftewr: The Critical Debate*, New York, Haper and Row, 1985, 5-22
12. Joan Ockmann ed.ArchitectureReproduc-tion, Cambridge, MIT Press, 1988
13. Theodore Adorno, "On the Fetish Character in Music and the Regression of Listening" (1938) in *The Essential Frankfurt School Reader*, ed, Arator, New York, Urizon Book. 1978
14. Theodore Adorno, "Commitment" in Aesthetics and Politics, London, New Left Books, 1988
15. G .Lukacs, "The Ideology of Modernism" in *Realism in our Time, Literature and the Class Struggle*, Haper and Row, 1971, pp. 17-46
16.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1

# Mapping the Concept of Modernism in Architecture

-Functionalism, Formalism and Artistic Avantgardism-

Lee, Sanghun

(Assistant Professor, Konkuk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 Abstract

Modernism in architecture is a very complex and contradictory phenomena. So much so that it has been defin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the history, depending on one's position i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It is thus necessary to map out the various concepts of modernism and their relationships in order to hav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odern architecture.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various positions as functionalism, formalism and artistic avant-gardism, and to trace their history from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o the present.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modernism from functionalism to artistic avant-gardism seems a logical process in the history of western modern culture. The tendency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o be more abstract and self referential artistic practice reflects the fragmentation of modern culture and the separation of art and technology. The validity of this position, of course, depends on how one evaluates the role of modern art in the situation of modern culture. It could be viewed either negatively or positively. However, this position is problematic in that it disregards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architecture and other arts and distanced architecture farther from its material base. Given this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concept of modernism, modernism in Korea should not viewed simply identical to the western modernism, nor should western modernism be imported uncrit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her modernization and their differences from the west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different status and role of architecture in korean modern society.